

金安老의 「先府君遺行」 연구

-成宗의 治世를 살아간 정치인 金訥의 삶-

구 슬 아*

< 目 次 >

- | | |
|--------------------|----------------------|
| I. 문제제기 | III. 「先府君遺行」의 특징적 국면 |
| II. 「先府君遺行」의 찬술 배경 | IV. 맺음말 |
| 1. 창작 동기 | |
| 2. 「선부군유행」의 개략 |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중종대의 문인이자 정치인 金安老가 아버지 金訥의 일생과 언행을 정리한 작품인 「先府君遺行」을 최초로 전면 분석하고, 일화 선택의 기준 및 표현 방법 등 특징적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투사된 金安老의 시대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金安老는 金訥이 사망하고 20여 년이 지난 151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일생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일화 43개를 선별하였는데, 이때 아버지의 스승 점필재 金宗직이 찬술한 『이준록』의 형식과 문제의식을 차용하였다.

「선부군유행」은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갖춘 사대부들이 조정에 나아가고 군주와 조정의 선진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는 조화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金安老는 성종대 치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대부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갈등과 반목 없이 상호 신의와 문학으로써 교류하던 문화를 꼽았다. 그리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trot999@snu.ac.kr

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상하의 위계질서에 순응하며 凌上을 경계하는 태도에 입각하여 모범적 정치인으로서 김혼의 삶을 묘사하였다. 반면 학문적 측면에서는 김중직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안로는 『선부군유행』의 찬술을 통해 성종의 치세 한 가운데를 살아간 아버지의 삶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대한 계승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후대에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전하였으며 나아가 아버지의 시대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시대의 이정표를 찾고자 하였다.

【주제어】 김혼, 김안로, 아버지, 김중직, 이준록, 성종

I. 문제제기

이 논문은 중종대의 문인이자 정치인 希樂堂 金安老(1481-1537)가 아버지 顏樂堂 金訥(1448-1492)의 일생과 언행을 정리한 「先府君遺行」을 최초로 전면 분석하고, 선택된 일화에서 간취되는 주제의식과 표현 방법 등 특장적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김안로의 시대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김혼은 점필재 김중직의 高弟로서 문장 능력이 뛰어나고, 진사시와 대과에서 연달아 장원급제한 것으로 유명한 문인이다.¹⁾ 그러나 의외로 그 생애나 문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연구사적 공백은 그가 연부역강한 나이에 사망하여 남긴 문학 작품의 수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관각문’으로 분류되는 작품이 많다는 점,²⁾ 그리고 그의 아들 김안로가 중종대의 權奸이자 戊午三賊의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인 듯하다. 이는 김안로의 문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는 현상이다.³⁾

1) 成倪, 『慵齋叢話』 권8, “金訥, 進士壯元及第壯元”

2) 김혼의 문집 『顏樂堂集』에는 그의 시 130여 수, 산문 30여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산문은 送序, 上樑文, 應製文, 箋文, 上疏 등 관각작품이 대부분이다.

3) 김안로의 문학은 잡록 필기인 『龍泉談寂記』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김안로의 문

그러나 최근 김안로를 포함한 중종대 활동 문인들의 문장관 및 정치의식이 김종직·김혼으로 이어지는 성종대 士類의 학문적 성향 및 성종대의 융성한 文治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가 제출되면서,⁴⁾ 김혼과 김안로의 문학 및 시대인식을 새롭게 살펴볼 여지가 마련되었다. 위의 연구 성과는 실록과 『希樂堂稿』, 『龍泉談寂記』에 드러나는 김안로의 학맥과 문장관의 기저를 살펴봄으로써 훈구·사림의 이분법을 벗어나 조선전기와 중기의 문화적 연속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한 ‘연속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본고에서 다룬 김안로의 「先府君遺行」(이하 「유행」으로 지칭)이다.⁵⁾

「유행」의 존재를 가장 먼저 학계에 소개한 분은 『안락당집』의 초간본을 소장하고 있던 김일근 교수이다.⁶⁾ 김일근 교수는 「유행」 중 김혼이 성종대 연해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일화에 주목하여 김혼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논점상 「선부군유행」을 통관하는 문제의식 등은 다루지 않았다.

자식이 아버지의 死後 그 삶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때에는 行狀 墓誌 遺事, 年譜 등 다양한 장르를 선택한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아버지의 일상 생활과 학문, 정치 등의 삶을 작품에 반영하여 사실성을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에 대한 칭송이나 추송의 의도가 짙게 부각된다. 그 결과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사대부 ‘像’을 정립하고 1차 독자인 후손들에게 전함으로써 가문의식을 강화하게 마련이다.⁷⁾ 바로 그 ‘이상화·전형화’의 방식이나

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용건, 「希樂堂 金安老의 文章觀과 學問 興期論」, 『대동한 문학』50, 대동한문학회, 2017, pp.56-57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정용건, 위의 논문, 2017; 정용건, 「中宗代 官僚 文人의 文治에 대한 기억과 정책적 계승」, 『한문고전연구』3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a; 정용건, 「中宗代 續巽增補 사업과 그 정치적 함의」, 『한문학논집』50, 근역한문학회, 2018b.

5) 이 작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안락당집』 초간본 부록에 「遺行」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본문 말미에 행격을 달리하여 김안로의 後識가 수록되어 있다. 이 후지는 『希樂堂稿』에 「題先府君遺行後」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작품명을 「선부군유행」이라는 구체적 명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6) 김일근, 「杜詩諺解」와 「黃山谷詩集諺解」에 對한 異見」, 『국어국문학』27, 국어국문학회, 1964.

구체적 '像'의 차이가 바로 묘도문자간 차이를 담지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한 선행연구에서 연보나 評傳 등 어떤 인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기록자의 역사적 태도 혹은 기록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였다.⁸⁾ 일화의 선택 과정에 기록자의 시대인식이 깊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처럼 아버지의 사후,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반추하며 지은 작품인 「선부군유행」의 찬술동기 및 선택된 일화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 특징적 국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김안로가 아버지의 삶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텍스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古貴3648-10-2, 『한국문집총간』15)을 저본으로 하였다.

Ⅱ. 「先府君遺行」의 찬술 배경

1. 창작 동기

김안로는 김흔이 사망하고 대략 20년이 지난 1513년, 아버지의 詩文을 2권1책으로 수습하였다. 뒤이어 延安金氏의 「世系」 및 아버지의 친우 申用漑가 지은 神道碑銘, 작은아버지 金誼이 지은 碑陰記 등 묘도문자, 김흔의 「年譜」와 「유행」 등 핵심적 내용을 수록한 뒤, 마지막으로 申從漢가 지은

7) 강경미, 「申綽 산문의 일고찰-行狀類 산문의 기록성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6, 고전문화한문학회연구학회, 2014, pp.231-232 ; 강혜선, 「조선 후기 윤증(尹拯) 가문의 부의식(父意識)과 아버지 상(像)」, 『돈암어문학』32, 돈암어문학회, 2017, pp.94-101; 강혜선, 「김창협, 김창흡 가문의 한시에 나타난 아버지」,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p.27. 강혜선 선생님은 이들 장르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삼입하여 자식을 교육하는 면모를 직접 거론하거나 규범에 입각한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영위해나가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전형성을 강화한다고 분석하였다.

8) 정출현, 「연보와 평전-사실의 기록 또는 기억의 서사」, 『한국한문학회연구』67, 한국한문학회, 2017, pp.72-73.

墓誌銘, 김흔의 師友 명단 및 그들의 略傳을 기술한 「先執記」 등을 2권1책의 별고로 엮어 문집의 후미에 편차하였다. 이 가운데 「연보」, 「유행」, 「선집기」는 김안로가 직접 찬술한 것이다. 그리고 1513년에 南袞과 姜渾으로부터 서문을, 1514년 金安國으로부터 발문을 받았다.⁹⁾ 1513년에 1차 定稿한 『顏樂堂集』은 곧바로 간행되지는 못하다가, 3년 뒤인 1516년에 고향인 慶北 榮川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¹⁰⁾

김안로는 「세계」에서 연안 김씨 가문의 遠祖(9대조) 金暹漢부터 조부 金友臣에 이르기까지의 조상들의 성명과 관력 등 略傳, 配位와 묘소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자신의 가문은 김섬한 대부터 이미 사마시 및 을과에 급제하였고, 고조 金澍는 명나라의 制科에 급제하여 공민왕으로부터 어필을 하사받았다는 일화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재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였다.¹¹⁾ 특히 가문의 실질적 중흥조인 6대조 金祐의 무덤에 대해서는, 풍수지리상 후에 가운데 3인이 반드시 장원을 할 것이라는 속설을 거론하며 金汝知, 魚變甲, 崔恒 등 연안 김씨 가문의 직계 내지 외손들이 장원을 차지하였으며, 김흔 역시 그러한 뛰어난 학문적 가풍을 계승하였음을 과시하고 있다.¹²⁾

9) 「顏樂堂集序」, 「時甲邵陽作噩(1513)季夏有日, 宜春南袞謹書」; 「顏樂堂集序」, 「蒼龍癸酉(1513)秋七月日, 晉川姜渾序」; 「顏樂堂集跋」, 「正德甲戌(1514)建寅月, 聞韶金安國謹跋」(『顏樂堂集』)

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말에 '奉正大夫行郡守權五紀 皇明正德丙子(1516) 孟秋榮川郡開刊'이라는 간기가 판각되어 있다. 『안락당집』은 현재 서강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1516년에 초간된 2권1책의 부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다. 시집과 부록은 모두 『한국문집총간』15로 영인되었다.

11) 김안로, 『안락당집』 권3, 「世系-遠祖諱暹漢」, 「好學不倦, 於書無不讀, 沈潛聖賢之訓, 深有所得(…) 遂登司馬試, 陞上舍, 明年, 登乙科, 授國子四門博士, 大興儒教」; 위의 책, 「高祖諱濤字長源」, 「恭愍十一年, 擢文科第二, 由正言選入大明, 登制科, 勅授將仕郎東昌府丘縣丞, 以親老東還, 仕至密直提學. 恭愍以御翰書 '蘿菴山人金濤長源'八字, 賜之. 【牧隱作贊】」

12) 김안로, 위의 책, 「세계-六代祖諱祐」, 「公之玄孫參判弟臣公, 嘗奉使到固城, 題志甚詳, 略曰: '玄祖贈大匡輔國行糾正公諱祐墳塋, 在縣東十三里道善海上, 三山星列海中,

또한 김혼의 부친 김우신의 행장을 전제하였는데,¹³⁾ 성종의 잠저시절 사부로 훗날 성종이 그를 ‘甘盤之舊’라 부르며 포상한 점, 김우신이 간직해온 魏徵의 「十思疏」를 김혼이 바치게 하여 성종으로부터 어찰을 받은 점 등을 기록하여¹⁴⁾ 대대로 임금의 지우를 입어온 가문임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세계」 뒤에 수록한 「연보」는 김혼의 관직생활을 중심으로 한 삶의 주요 행적을 시대 순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김안로는 「연보」와 「유행」의 사건을 철저히 분리하여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도록 안배하였다. 「연보」는 관력 기록에 주안을 두고 해당 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간략히 서술한 반면, 「유행」에서는 강조해야 할 일화를 상세히 묘사·서술하였다.¹⁵⁾ 불가피하게 「연보」의 사건을 「유행」에서 재차 강조해야 할 때

爲案對. 夫人黃氏墓, 在縣西時達里, 距縣七里許. 世傳一緇衣, 登公之墓, 指海中三山曰: “後裔擢壯元者, 必三人.” 其後, 公之曾孫文翼公汝知, 外曾孫直提學魚公變甲, 玄孫崔文靖公恒, 竝大魁. (….) 逮至于今, 吾兄子訢, 以戊子進士魁, 又冠辛卯親試科, 世復謂三山之應, 必在直孫, 若以直孫爲言, 則唯文翼與兄子二人而已.” 인용한 글은 김안로가 자신의 종조부인 金梯臣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어변갑·최항 등 조선전기 최고의 정치인들이 김안로와 가문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 글을 통해 처음 드러난다.

- 13) 김우신의 행장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고, 二樂亭 申用溉가 지은 神道碑銘이 『二樂亭集』 권13에 「知中樞府事金公神道碑銘」이라는 제목으로 남아있다.
- 14) 김안로, 앞의 책, 「세계-考胡簡公」, “時, 成廟在潛邸, 公爲師傅. (….) 降教褒之曰: ‘爾以甘盤之舊, 久勞于外.’ (….) 公外王父觀察公善楷法, 嘗書魏徵十思疏, 公愛藏之, 一日, 付其子直提學訢曰: ‘汝遭遇聖明, 昵侍經幄, 職在論思, 汝所當師者, 莫鄭公若也, 汝當惕然思齊, 動必循蹈, 嘉言讜論, 朝陳暮獻, 然後庶無負於吾外王父繕寫之意.’ 提學祗受而退, 以其疏軸并筭上之, 陳戒切至, 成廟嘉獎, 御翰答之.”
- 15) 예컨대, 대마도에 사신을 간 일화와 관련하여 「연보」에서는 “成化十五年己亥四月(1479). 國家通信日本, 以副提學李亨元爲使, 行大護軍李季全爲副, 差公書狀官以遣. 六月初七日黎明, 發船于巨濟縣知世浦, 日昃, 泊對馬州沙愁羅浦. 十八日, 抵古于【古于, 卽島主所居也】, 上个疾作, 不能行, 書聞命還. 九月十七日, 還泊東萊縣釜山浦. 使還, 命陞級. 冬, 加奉直.”이라 하여 사신들의 성명, 출발일과 도착일 및 구체적 지명, 관력 등의 정보가 서술된 반면 「유행」에서는 “國家通信日本, 爲使者, 皆憂危欲免. 臨發, 書狀官有故, 薦公以代. 公欣然就道, 略無難色. 至對馬島, 宣旨旣, 將啓棹, 島主難之曰: ‘自島抵本國, 有兩路. 北路, 越海十餘日, 直泊石見州. 【在日本北】 南路, 渡一岐博多二海, 又沿海三十餘日而至焉. 今使臣之行, 弊島爲之嚮導, 由北則往返便

에는 「詳遺行과 같은 세주를 통해 상호 참조할 것을 밝혔다. 또한 「선집기」에는 '先執', 즉 김혼의 同志¹⁶⁾ 29인의 명단을 기록하고 주요 인물의 약전을 기술한 것이다.¹⁷⁾

요컨대 『안락당집』의 본문인 시문이 김혼의 문학적 삶과 그 정수를 담은 부분이라면, 부록(권3-4)은 김혼의 가문적 배경과 관력, 인맥을 총망라하여 家格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락당집』의 발문을 지은 김안국은 자신은 김혼의 문하에서 수학한 적이 없지만, 시문과 함께 김안로가 엮은 부록을 통해 김혼 삶의 열개를 비로소 모두 유추할 수 있게 되어 마치 그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은 듯하다고 술회하기도 하였다.¹⁸⁾

「유행」은 김혼의 사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찬술된 것이다. 김혼이 사망한 1492년, 김안로는 겨우 12세였다. 자손들이 장성하였을 경우 아버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장 등을 찬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速, 由南則必淹數月, 非徒島貧行齋之難, 海寇充斥, 固不可達.' 論詰未已. 【北路難險, 自昔不通. 我國使价, 皆由南達, 島人詭言, 故詰之.】 於是, 一行聚議, 趙之瑞【以從事官赴焉】等曰: '南路賊熾, 豈可達耶?' 公曰: '由北乎.' 曰: '連天大洋, 泱旬浮海, 自前不由之路, 今豈可輕冒其險?' 公笑曰: '然則南北皆難, 欲止此行乎? 況南路所歷, 皆有書幣, 烏得擅違?' 公獨確執, 議遂定. 已而, 使疾革, 不能行, 將書稟, 皆欲以道梗爲辭. 公曰: '諉以浪語, 奉命不達, 豈使節乎? 卽草奏, 但言使病, 待朝命. 當從南道云云. 一行皆曰: '稟辭如此, 必易他使, 吾儕此行, 難乎免矣.' 及命還書至, 一行驚躍, 喜聲如雷, 公獨怡然, 謂曹伸曰: '與爾誦繇詩未了, 可恨.' 初留島中, 約與伸誦東坡日三十紙, 伸誦, 則公背之, 公所誦, 亦令伸背故云."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일본에 사신가기를 꺼리던 상황과 그 이유, 김혼의 초연한 기개와 공무에 임하는 정연한 의지 등을 대화체로 묘사하였다.

- 16) '朋友'나 '師友' 등이 아닌 '執友'라고 표현한 것은 『禮記』 「曲禮上」, 「僚友, 稱其弟也; 執友, 稱其仁也; 交遊, 稱其信也."에서 유래한 것이다.
- 17) 『안락당집』 권4, 「선집기」에 수록된 인물은 김종직, 金克儉, 洪貴達, 柳洵, 成胤, 李瓊全, 崔淑精, 李祐甫, 成俶, 安琛, 成健, 蔡壽, 權景祐, 表沿沫, 李季全, 李命崇, 李昌臣, 韓堰, 曹偉, 俞好仁, 鄭誠謹, 鄭錫堅, 楊熙止, 曹淑沂, 李世佑, 許琛, 權健, 金應箕, 申從漢 등 29인이다.
- 18) 金安國, 위의 책, 「顏樂堂集跋」, "余不及遊顏樂堂先生之門(…), 最後, 乃見先生之季胤胤叔氏所哀錄顏樂堂集後世系年譜遺行先執記, 然後悉得夫先生平生之槩, 若髣髴樞衣於先生之堂而承其馨歎之餘也."

로 유력 문인이나 아버지의 친우들에게 묘지명을 부탁하는 일반적인 추송 작업이 가능할 것이나 김안로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다. 현재 김혼의 행장은 전하지 않으며, 사망 당시 친우들이 지은 신도비명과 묘지명만이 전한다. 김안로는 훗날 장성한 뒤 바로 그 묘도문자를 바탕으로 「유행」을 찬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행」의 특수한 창작 배경은, 자식이 직접 아버지를 侍側하며 보고 들은 일화를 회상하고 슬회하는 여타 언행록 류와는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한다. 일화의 상당부분이 필연적으로 아버지 주변의 인물들의 傳言에 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⁹⁾ 특히 조정에서 활약한 아버지의 삶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지 못하였기 때문에,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의 동료들 및 김안로 자신의 시야를 거쳐 취사선택되고 ‘필터링’된 내용이 작품에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아이! 선조의 덕업을 현양하는 일을 고자 안로가 능히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종파는 비조로부터 선부군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멀어 계보나 호적 또한 없어졌다. 그래서 나처럼 보잘 것 없는 후손 대에 이르러서는, 증고 이상으로는 여전히 막막하여 잘 알 수가 없다. 나는 이와 같은 현실에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에 선부군의 문집을 편집한 뒤, 내가 보고 들은 것과, 古譜를 두루 방증하여 차례로 「세계」를 만들고 선고의 말미에 부록하였다. 선조를 잊지 않고 그 유래를 구명하고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보」를 수록하고, 다음으로 「유행」으로부터 교유한 분들에 이르렀으니, 말은 다 하지 못하였어도 그리움은 무궁하다. 아이! 선부군의 덕행을 어찌 고자의 말로 능히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설령 고자가 잘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누가 고자의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러나 남들이 고자를 믿지 않는다 하여 가만히 앉아서 그 실

19) 이러한 방식은 구양수의 「瀧江阡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양수는 자신이 4세 때 사망한 아버지 歐陽觀의 墓表를 사망 60년 뒤에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구술을 대신 전하는 형태로 아버지의 묘표를 서술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미관말직을 역임한 데서 기인한 소재의 결핍을 극복하고자 治積 대신 소소한 일화를 선택하였다. 남종진, 「中國傳統墓道文의文學的特徵에 대하여歐陽脩의 <瀧岡阡表>를 一例로」, 『중국문학연구』27, 한국중문학회, 2003, pp.162-175.

제가 인멸되는 것도 차마 할 바는 아니다. 조정에서 시행되고 봉우들 사이에서 드러난 것은 국승에 실려 있고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있으니 고자는 의당 군더더기를 더할 것이 없다. 그러나 고자가 어렸을 때부터 슬하에서 봉양하였으나 그 상세함에 대해 이미 잃어버린 것이 이와 같은데, 나 이후로 또 몇 대가 흐르면 우리 선부군에 대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밀줄 강조: 필자] 이에 기록으로 남겨 후예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한다. 아아! 고자 안로가 비록 불초하기는 하나, 없는 사실로 부모님을 꾸미는 것이 불효임을 잘 안다. 그러니 어찌 감히 망령되어 칭양하여 나의 부모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겠는가? 추억으로 기억하고 사람들이 전하는 바는 대부분 망실되어 갖추지 못하였고 겨우 그 열개라도 보존하였으니 아아! 무궁하리рода! 아아! 무궁하리рода. 1513년 봄, 孤子 안로가 통곡하며 짓다.²⁰⁾

인용한 글은 1513년, 김안로가 「유행」을 편찬한 뒤에 부록한 後識이다. 여기에는 일화 선택의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김안로는 김흔의 문집을 편찬한 뒤,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드러내고 관련 정보가 더 망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보」와 「유행」, 「선집기」를 엮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흔은 조정에서 뛰어난 행보를 보여 그 행적이 실록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자연히 교유한 인물도 많아 증언해 줄 내용 또한 풍부하지만 가정에서 시측하며 자식만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은 시일이 오래 지나 기억이 점차 산일되어 가기 때문에 속히 기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후지는 아버지의 스승인 김종직이 『彝尊錄』 「先公事業」을 편

20) 김안로, 앞의 책, “嗚呼! 顯揚先德, 孤安老能之哉! 吾宗, 自鼻祖, 至先府君, 世積代遞, 系籍又沒, 逮我眇末, 曾高以上, 尙亦昧昧. 孤未嘗不痛傷於斯, 編輯先稿既, 孤以見聞, 旁證古譜, 序爲世系, 尾付于編, 不忘乎先, 而推明繼繼之有自也. 次年譜, 次遺行, 以及乎交游, 言不足而思無窮也. 嗚呼! 先府君之德之行, 豈孤之言所能盡? 孤安老縱能言, 人誰信乎孤哉? 諉之人不孤信, 而坐泯其實, 亦非孤之能忍也. 施于朝著于册執者, 在國而乘, 在人而耳目之, 孤宜無贅也. 然孤之稚年, 逮歡膝下, 而已失其詳如是, 自我以下更數世, 其何能有徵於先耶? 於是乎錄焉, 俾後裔庶有以知之. 嗚呼! 孤安老雖不肖, 亦嘗知誣親之爲不孝, 曷敢妄有所稱揚, 以負吾親哉? 追憶所記, 士林所傳, 多亡不備, 僅存其槩. 嗚呼! 其無窮也已! 嗚呼! 其無窮也已! 正德癸酉(1513)春, 孤子安老哭誌.”

차할 때 지은 후지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이 다음 인용문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다.

아! 선공의 평소의 덕행과 사업에는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이 매우 많지만 이 孤子가 어찌 감히 남들에게 그 부분을 칭송할 수 있겠는가? 고자가 선공의 훌륭한 점에 대해 칭양한다면 그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러나 선공께서 벼슬을 하신 것은 모두 낮은 관직이었으므로 史官이 선공께서 행한 사업에 대해 기록할 수가 없었다. 또한 선공께서는 빼어난 덕을 내면에만 간직하고도 직접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그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무릎 위에 앉아 직접 얼굴을 뵈면서 한 번 쩡그리고 한 번 웃고 하는 가운데 친히 보고 듣는 것에 무뎠어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을 사람으로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남들이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행적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선공의 훌륭한 행적이 끝내 후대에 밝게 알려지지 못할 것이므로, 고자는 이 점을 크게 두려워할 뿐이다.²¹⁾

김종직은 1458년, 자신의 아버지 金叔滋(1399-1456)의 삼년상을 마치며 世系, 年譜, 師友, 事業, 祭儀 등 다섯 범주로 아버지의 일생을 정리한 『이준록』을 편찬하였다. 조선전기에 아버지의 언행 및 가범을 총망라하여 별고로 엮은 사례는 『이준록』이 최초이다. 이후 약 20년간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고 산삭하여 1480년 『이준록』을 최종 완성하였다.²²⁾

김안로의 후지와 김종직의 후지에서 공히 자식으로서 선조의 선행을 드러내는 데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의 유사성은 『禮記』²³⁾

21) 김종직, 『이준록』하, 「선공사업」, “嗚呼! 先公平日德行事業, 可紀者甚衆, 孤宗直何敢爲人稱善? 以孤而揚先善, 其誰取信哉? 然先公仕諸朝皆宥官, 太史氏不得書其行事. 又且含章蘊美, 不自表襮, 人無得窺其涇際者. 有以坐膝承顏, 一嚔一笑, 親濡染於耳目, 不遺錙銖者, 孰孤若也? 患未取信於人而不著之, 是先公之美, 終不昭于世也, 孤是以大懼焉.”

22) 즐고, 「김종직의 『이준록(彝尊錄)』에 대한 문학적 고찰」, 『국문학연구』35, 국문학회, 2017, pp.185-190.

23) 『禮記』, 「祭統」 “子孫之守宗廟社稷者, 其先祖無美而稱之, 是誣也; 有善而弗知, 不明也; 知而弗傳, 不仁也. 此三者, 君子之所恥也.”

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버지의 삶을 추승하는 장르에서 『예기』의 이 규약은 생각보다 더 단단한 견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자와 대상간의 관계가 부자간이므로, 윤색과 과장에 대한 경계가 유달리 더 심하다. 아버지의 삶을 추승하는 장르들이 대개 비슷한 미의식과 일화를 보이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력은 대개 유사하기 때문에 경험의 유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인용문의 밑줄 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종직은 아버지가 역임하신 관직이 낮아 국승에 기록된 바가 없고 덕을 숨기는 바람에 증언해줄 동료 역시 적지만, 자신이 직접 목도한 아버지의 덕업과 가르침이 역력하므로 언행록을 엮어 후손들에게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아버지의 삶을 기억할 서적이나 자료가 없다는 것은 김숙자가 미관말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자연히 뜻을 같이 할 훌륭한 동지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김종직은 「선공사업」에서 43개의 일화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孝弟를 위주로 한 『소학』의 도덕적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오류를 수호하는 규범적 군자임을 강조하고, 후손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계승해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²⁴⁾ 이 문장은 김안로의 후지와 내용상 정확하게 상반되고 있다.

「세계」, 「연보」, 「유행」, 사우 명단의 구성 형식 역시 『이준록』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았다는 방증이다.²⁵⁾ 김종직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린 까닭은 가문을 중흥한 상징적 인물의 행적을 정리하고 이를 구심점 삼아, 후손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적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것을 추동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조선 전기 선비들의 학문적 정체성이나 구체적 행위의 기준을 본격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던 시대적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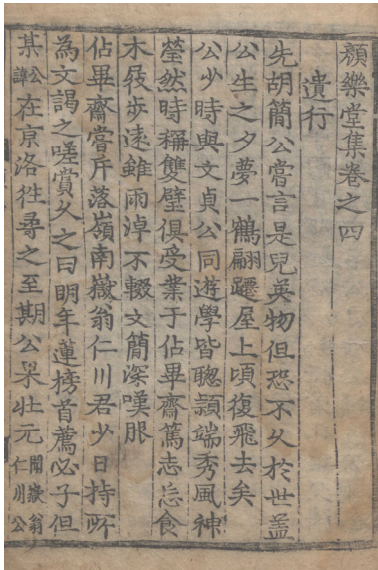
24) 졸고, 앞의 논문, 2017, pp.226-228.

25) 이종목 선생님 역시 조선 중기 이전의 初期綱目式年譜를 고찰하는 가운데, 『안락당집』의 권3~4 부분이 『이준록』과 형태가 유사하여 영향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종목, 「韓國 文人 年譜 研究-16세기 이전의 연보를 중심으로」, 『장서각』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pp.20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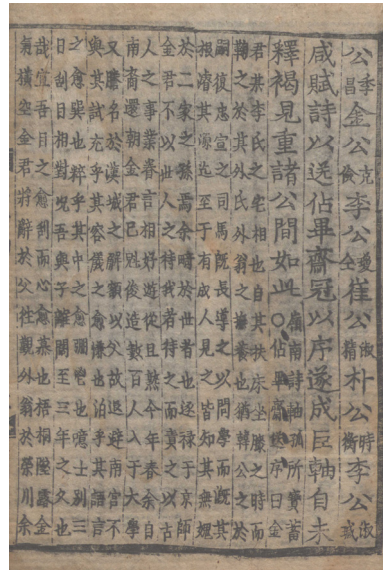
락 속에서 실제 롤모델이 될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김숙자는 '김종직의 아버지'에서, 『小學』을 학습하고 실제 삶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편적 '시대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준록』의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을 계승하되 전혀 상반되는 정치적 행보를 겪은 김혼의 일생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선부군유행」의 개략

「선부군유행」은 공교롭게도 『이준록』 「선공사업」과 같이 모두 43개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과 그림2에 보이듯 일화에 따라 행을 달리하였으며, 각 일화 말미에 세주의 형식으로 出處를 부기하였다.



<그림 1> 「유행」 권수면



<그림 2> 「유행」 본문과 세주

일화가 기재된 순서에 따라 연번을 부여하고 주요 내용과 비정되는 시

기, 출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선부군유행」의 주요 내용

연번	내용	시기	출처
1	김혼이 태어난 날의 꿈과 죽음에 대한 예측	1448	김우신의 발언 인용
2-4	학문への 입문부터 과거 급제	1464-1468	김종직에게 수학 채수 및 김우신의 발언 인용
5	아버지와 의 피험을 위해 해역에 나아가지 않고 외조부에게 귀근		김종직의 送序 및 급제를 축하하는 詩 전문 수록
6-7	조정 선진들에게 받은 총애		강희맹에게 들은 姜龜孫의 傳聞 이극배의 발언 인용
8	뛰어난 기억력으로 실수를 만회한 일화 ·이극배와의 일화		金勸 및 姜希顔의 발언 인용
9-10	타고난 풍류와 호방함		賤妓에서부터 權健의 장인 李德良에게 받은 인정
11-12	김종직에게 응교 직책을 사양한 일화와 성종의 예우	1482	예문관 동료들에게 傳聞, 실록 수록
13-14	성종에게 인정받은 문학적 능력	1480	金壽童의 발언 인용, 실록 수록
15	임금에게 아부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과 간언의 방법		묘지명 인용 실록 수록
16	일본 사행: 공사를 위해 위험을 마다않는 성품 및 합리적 판단력	1479	曹伸과의 일화
17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 관대함과 엄격함	1479	
18-19	생사에 초연한 기개	1479	조신과의 일화
20	김종직에게 받은 총애	1479	
21-22	『山谷集』에 대한 주석 및 언해작업	1483	성종의 언해 명령은 실록 미수록
23	대마도 오랑캐들에게도 인정받은 장중함	1479	『扶桑錄』 인용
24	충주 疑獄 사건과 관련한 성종과의 일화	1483	연보와 상호 참조, 실록 미수록
25	옥당의 친우들에게 받은 상소 창작 능력		
26	홍문관의 의론에 휩쓸리지 않는 안목: 李淑瑊 탄핵 관련	1484	성희안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들은 김안국의 발언 인용
27	뛰어난 문학적 능력과 관련된 일화		채수 및 신중호의 발언으로 추정
28	청렴하고 검소한 성품		모친에게 傳聞

연번	내용	시기	출처
29	侍講에서의 일화: 小人에 대한 경계	1477	『국조보감』에서 인용
30	侍講에서의 일화: 군주에 대한 계도	1480	『국조보감』에서 인용
31	應製月課에서 보인 뛰어난 문학적 능력		金壽童의 발언 인용, 실록 수록
32	성종의 인재 예우와 사가독서 선발		『讀書堂故事』 인용
33	魏徵의 『十思疏』 죽자를 바친 일화	1486	『국조보감』에서 인용, 김종직의 『御札贊并序』 全載
34	治家の 방법		
35	巫佛에 대한 배척		김안로의 6-7세 때의 기억
36	풍습병 이후 성종에게 받은 은혜	1487	실록 수록
37	와병 중에도 그치지 않는 직언	1488	실록 수록
38	사망 후 동료들이 전하는 그리움	1501	李昌臣의 발언 인용
39	김종직과 조위에게 인정받은 문학적 능력		曹偉의 발언 인용
40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기개		
41	『戰國策』 진상 및 과거 주관	1490	실록 수록
42	독서와 博通		김종직에게 수학
43	성종의 문사 예우 및 삶에 대한 총평		『용천담적기』에 유사한 내용 수록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유행」은 김혼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43개의 일화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대단히 직관적이고 선명하다. 먼저 전체 일화 가운데 약 1/3 가량인 15개 조목이 成宗의 사대부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1/3인 16개 조목은 김종직, 姜希孟, 徐居正, 盧思愼 등 당대 최고의 先進들과 관련된 일화이다.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의 일화 및 일본에 사신 가는 길에 드러난 김혼의 기개 및 풍취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성종으로부터 받은 예우 및 김혼이 올린 강직한 간언 등은 『성종실록』에 기재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되, 대화 장면 등에 문학적 윤색을 더하였다.²⁶⁾

요컨대, 김안로가 찬술한 아버지 김혼의 「연보」 및 「유행」은 그 자신이

26) 김안로는 해당 일화의 출처가 『國朝寶鑑』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해당 일화들은 『국조보감』이 아닌 실록에 수록된 내용들이다. 김안로가 후지에서 언급한 '국승'을 실제로 참조하였다는 방증이다.

직접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이준록』의 형식 및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술 방법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김숙자와 김혼 간 관직의 고하, 그리고 가문의 위세나 학문적 유산의 융성함 등에서 발생하는 낙차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터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유행」은 창작 배경상 김안로의 '필터링'이 김종직의 그것에 비해 더 명백하기 때문이며 또한 「유행」이 단순한 사적·공적 사건의 전모를 서술하는 데 그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행」에 이르기까지, 김혼이 군주와 동료의 선진들로부터 받은 예우를 중심으로 「유행」을 구성한 데에는 김안로가 자신의 家格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가풍을 드러내는 것이 곧 이 작품의 문학적 미학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김안로의 「유행」에 드러난 특징적 국면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Ⅲ. 「先府君遺行」의 특징적 국면

언행록이나 행장 등 전장비지류는 대개 첫 조목에서 망자의 천성과 삶의 방향성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이후에 이어질 일화를 통관하는 주제의식을 제시한다.²⁷⁾ 그러나 김안로는 김혼의 일생을 다소 새로운 방식으로 개괄하였다.

- [1] 할아버지 호간공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아이[김혼]는 영물이다. 다만 세상에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 염려된다.” 선공이 태어나신 날

27)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언행을 정리한 대표적 사례로 구양수의 아들 歐陽發 형제가 저술한 「先公事跡朱熹: 歐陽文忠公事蹟」을 들 수 있다. (『歐陽文忠公集』附錄 권5) 이 작품의 제1조목은 “先公爲人, 天性剛勁, 而氣度恢廓宏大, 中心坦然, 未嘗有所屑屑於事. 事不輕發, 而義有可爲, 則雖禍患在前, 直往不顧. 以此或至困逐, 及復振起, 終莫能掩, 而公亦正身特立, 不少屈奪.”로 구양수가 평생에 걸쳐 견지한 성품과 삶의 지향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김종직의 『이준록』 역시 마찬가지이다.

저녁, 꿈에 학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너울너울 날더니 이윽고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²⁸⁾

김혼이 태어난 날 저녁 김우신이 꾸 꿈을 짧게 제시하여, 그가 뛰어난 외모와 비범한 자질을 타고났지만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운명임을 드러냈다.²⁹⁾ 태몽을 통해 인물이 타고난 운명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수법은 傳記類의 서두에서 종종 쓰여 왔으나, 선조의 업적을 정리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유행」에서는 다소 특이한 開頭의 수법이 아닌가 한다.

[2] 선공은 어렸을 때, 伯父이신 文貞公[필자주: 金諶]과 함께 유학하였는데, 두 분 모두 총명하고 단정하며 외모 또한 출중하였으니 사람들이 쌍벽이라고 칭하였다. 함께 점필재 선생께 수업하였는데 심지를 독실히 하여 밥 먹는 것도 잊을 지경이었다. 나막신을 신고 먼 길을 걸어 다녔는데 설령 비가 와서 진창길이 되어도 그만두지 않았으니, 문간공 [필자주: 김종직]께서 깊이 탄복하셨다.³⁰⁾

인용한 2화는 1464년 김혼이 김종직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는 내용이다. 김혼은 과연 김우신의 예지몽처럼 탁월한 외모와 품성의 소유자였으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학업을 연마하는 데 부지런하였음이 부각되어 있다. 구체적 표현은 신중호가 1492년에 지은 묘지명, 미상의 저자가 지은 金諶의 행장 등에서 인용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의 재능을 자식의 목

28) 김안로, 『안락당집』 권4, “先胡簡公嘗言: “是兒英物, 但恐不久於世.” 蓋公生之夕, 夢, 一鶴翩躚屋上, 頃, 復飛去矣.” 이하의 원문은 『안락당집』 권4에 수록된 것이므로 출처는 생략하겠다.

29) 학이 날아들었다 떠나는 것은 흉조로서, 이 역시 구양수와 관련된 고사이기도 하다. 邵雍, 『夢林玄解』 권20, 「鶴飛去凶」, “宋歐陽修, 字永叔, 在夷陵, 遊姜詩廟, 潛禱嗣續, 其家人夢, 一鶴飛來, 自云此鶴, 果有一女, 甚端麗. 至八歲, 忽夢一鶴, 飛去, 未及旬, 此女暴疾卒.”

30) “公少時, 與文貞公同遊學, 皆聰穎端秀, 風神整然, 時稱雙璧, 俱受業于佔畢齋, 篤志忘食, 木屐步遠, 雖雨淖不輟, 文簡深嘆服.”

소리로써 과장하여 顯彰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³¹⁾ 학업을 할 때 식사하는 것도 잇을 만큼 열중하였다거나 스승이 계신 곳이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수업을 들었다는 내용은 조선 사대부의 행장이나 묘지명 등에 빈출하는 심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³²⁾ '英物'이라는 서두의 표현과 조응하여서는 새로운 미감을 창출한다.

김안로는 『용천담적기』에서 천지만물은 정해진 운수를 타고나지만 인간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면 끝내 궁벽해지는 지경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다.³³⁾ 그리하여 아버지 김흔이 타고난 자질에 의존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고 서거정, 강희맹 등 당대 최고의 문신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을 제2화부터 제7화 등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피력하였다.

- 【42】 선공께서는 독서에 탐닉하셨는데 비록 劇地에 임하셔도 책을 놓지 않으셨다. 경전을 연구함에 易理에는 더욱 정밀하셨고, 子史를 넘나들며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문학의 경우 韓愈와 杜甫를 읽었을 때 배우셨고 만년에는 蘇軾, 黃庭堅, 王安石, 陳師道를 좋아하시어 반드시 모두 외우셨다.³⁴⁾

인용한 제42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흔이 보여준 뛰어난 문장실력은 경사자집을 넘나드는 박통한 독서편력과 평생에 걸친 문장 학습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³⁵⁾ 김안로는 아버지의 모범적 삶의 면모로서 평생에

31) 신중호, “生而穎異, 稍長, 閉門讀書, 人罕見其面, 窮窳剝蝕, 澆讀日富.”; 「附文貞公行狀」, “公自結髮, 遊戲不凡, 稍長, 與仲弟同游學, 不效讜諷, 而篤志忘食, 皆容采端雅, 風神穎秀, 人目爲雙璧. 同受業于金文簡宗直, 每朝步遠, 不廢雨雪, 大爲文簡器服.”

32) 이 표현은 주희의 사위이자 高弟인 黃幹이 지은 「朱子行狀」, “先生歸自同安, 不遠數百里, 徒步往從之.”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33) 김안로, 『希樂堂文稿』 권8, 「용천담적기」, “凡天地萬物, 莫不有一定之數, 固不可以智計移易之. 然不容人力, 而隨人所爲, 自能推遷, 而不可窮者, 亦理也.”

34) “公耽於讀書, 雖帶劇地, 亦不廢卷. 研熟經傳, 尤精易理, 泛濫子史, 靡不該貫. 詞學如韓杜, 少皆師受, 晚好蘇黃王陳, 必成誦乃已.”

결쳐 학습하고 독서하며 노력하는 학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김혼의 삶은 곧 김안로가 지향하던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을 증명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유행」 전편은 자칫 비극적으로 묘사될 법한 분위기를 탈각한 채, 운명에 개의치 않는 김혼의 성품과 뛰어난 능력 등 그 인간적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자로서의 면모가 곧 김숙자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윤리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士人の 면모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7】 광릉 이극배 대감께서 병조판서이실 당시 선공은 병조좌랑이셨다. 하루는 업무로 그 댁에 갔는데, 이극배 대감께서 선공의 風致를 아끼시어 특별히 술자리를 마련하고는 중국계 큰 자종 한 개를 내어 술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술잔을 한 번에 비우면 자네에게 주지.” 그러자 선공이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마침내 소매에 넣고 나갔다. 이씨 집안은 매우 검약하여 비록 친척이 오더라도 술을 권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공이 능히 그 인색함을 깨뜨려주었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계부 판서공 金詮에게 들었다.】³⁶⁾

【27】 인천공[필자주-김안로의 장인 蔡壽]께서 일찍이 나에게 말씀해주시기를, “자네 선공이 지은 시문은 정수를 깊이 얻었다. 또한 안목이 높고 시류와는 달랐으니 항상 우리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내가 대사헌이었을 때 폐비의 일에 대해 간언하였는데, 성묘께서 진노하시어 앞일을 예측할 수 없었다. 대궐 아래 나치가 되었는데, 어찰로

35) 장영희는 『용천담적기』에 수록된 필기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참고 ‘正道’를 걸어가야 한다는 사대부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한 주제의식이 사립의 등장에 의한 것으로 15세기와 17세기 필기문학의 중간에 있는 『용천담적기』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장영희, 「16세기 필기의 일고찰-『기묘록(己卯錄)』과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민족문화사연구』26, 민족문화사학회, 2004, pp.195-197.

36) “廣陵李相國克培判兵部, 公爲佐郎, 嘗以事詣第, 愛其風致, 特置酒, 出一唐大磁鍾, 侑之曰: ‘倒此, 輒相遺.’ 公健倒, 遂袖出. 李家儉約, 雖親黨, 少被歡飲, 人謂公能破慳. 【開季父判書公】”

써 십 수 가지의 죄를 적으셨는데 모두 부정한 일이라고 되어 있었다. 왕복하며 힐책하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니 어느새 지면이 꽉 찼다. 그러나 사리가 균색하지 않으니, 선공이 보고는 깊이 인정하며 “가히 눈을 씻고 볼만 하군요.”라고 하였다. 어느 날은 영의정 선성 노사신공을 배알하였는데, 선성공과 중용히 담론을 하다가 마침내 중횡무진 경사를 논함에, 고금을 두루 꿰뚫고 조리가 통달하니 선성공께서 크게 탄복하셨다네. 이에 잔에 가득 술을 권유하니, 손을 맞잡고 방론하다 취한 몸을 가누며 밤이 깊어서야 자리가 파하였다. 이튿날, 친우인 참판 신중호가 선공이 술로 인해 실수할 것을 걱정하여 거짓으로 공을 속였다네. “어제 자네가 만취하여 선성공의 콧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이 노인네도 글을 잘 안단 말이야.’라고 하였는데 선성공께서 묵묵히 계셨다네. 자네는 술버릇을 조심해야겠구만.”이라고 했다지. 그러자 공이 깜짝 놀라며 “내가 과연 그 지경이었던 말인가!” 하고는 놀라고 후회하며 술을 끊은 지 오래라네.”³⁷⁾

각각 청렴하고 검소한 것으로 알려진 이극배³⁸⁾가 휘하의 관료 김흔의 호탕한 풍류를 인정하여 귀한 중국 술잔을 내어주며 술을 권하다 낭패를 본 일화와,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동료 및 조정의 대선배를 격의 없이 대하면서도 분노를 저축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일탈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제27화에서 김안로는 자신의 장인이자 김흔의 친우인 채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김흔의 뛰어난 문학적 능력과 남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높은 안목을 강조하였다. 채수는 자신의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 1482년, 폐

37) 『仁川公嘗語孤曰: ‘先公爲詩文, 深得精髓. 且眼高寡與, 常於吾輩, 蔑如也. 余爲憲長, 諫廢妃事, 成廟震怒, 事將不測, 拿致闕下. 以御札數十罪, 皆構成不情之事, 往復詰責, 隨問隨對, 輒書滿紙, 辭理不窮, 公見之, 深許曰: ‘可刮目矣.’ 有日, 謁宣城盧議政, 宣城從容談論, 遂縱橫經史, 旁穿今古, 指會條貫. 宣城大加嘆服, 開尊勸滿, 握手放論, 扶醉夜闌而罷. 明日, 有親執【即申參判從獲】懼公病酒, 佯誣公曰: ‘昨君冥醉, 挽宣城髻曰: ‘此老亦解文乎!’ 宣城默然, 君宜戒酒.’ 公愕然曰: ‘吾果有是乎!’ 驚悔斷酒者久之.”

38) 『연산군일기』 권6, 1495년(연산 1) 6월 2일, “廣陵府院君李克培卒. (….) 平居寡言笑, 篤於經學, 又能吏治. 束帶立於朝儼然, 人望而畏之. 自未貂蟬, 業然已有公輔之望. 政柄在手者久, 而門無私謁, 於物無所好, 未嘗以歌舞管絃爲娛. (….) 但性吝嗇, 居家, 雖升斗之細, 無不知.”

비 윤씨를 여염에 두지 말고 따로 거처를 정하여 供奉할 것을 건의하였던 일을 거론하였다. 당시, 채수는 성종의 분노를 자극하여 끝내 투옥되어 문초를 받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³⁹⁾

그러나 인용한 일화에서는 대신의 파직과 처벌의 위기감 등은 전혀 엇볼 수 없고, 먼 훗날 위기를 극복한 뒤 이를 회상하는 여유만이 간취될 뿐이다. 더구나 김혼은 채수가 대궐에 나치되어 임금의 문초를 받는 상황에서 그가 성종과 주고받은 공초문을 읽고는 刮目相對라고 칭찬하며 비로소 채수의 문학적 능력을 인정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단락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대부의 묘도문자에 좀처럼 묘사되지 않는 거나한 술자리에서의 고성과 담론이 드러나 있다. 김혼이 자신보다 약 20세 연상인 영의정 盧思愼(1427-1498)과 함께 經史에 대해 종횡무진 담론하는 가운데 노사신으로부터 그 학식을 인정받았음을 묘사하였다. 이윽고 신중호가 김혼이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지나친 자만과 오만함으로 인해 술자리에서 선배에게 실수하는 것을 우려하여, 노사신의 수염을 잡아당겼다는 거짓말로 술버릇을 고쳤다는 내용은 『필원잡기』 등 조선전기 잡록에 등장할 법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⁴⁰⁾ 채수나 노사신 등 김혼을 상대한 인사들은 불쾌할 수도 있을 법한 행동에 불만을 제기하거

39) 『성종실록』 권144, 1482년(성종 13) 8월 11일-17일 기사. 실록에 따르면 채수가 8월 11일 경연석상에서 이 일을 거론한 뒤 書啓하였다. 12일부터 14일까지 성종이 직접 채수를 문초하고 의금부에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는데, 17일 채수가 옥 중에서 자신의 옷자락에 상서하여 죄를 뉘우침으로써 사면되었다.

40) 제10화에서도 “忠愍舅李宰相德良, 散其風, 爲設筵于第, 令忠愍高會, 公亦赴焉. 酒闌歡謔, 風流豪致, 超逸可觀. 李宰相悅其風度, 從燈後注矚, 夜竟無倦云.”이라 하여, 김혼이 동료들과 함께 주연을 자주 즐기며 호방한 풍류를 드러냈고 선배들이 이를 인정하고 부러워하였음이 묘사되어 있다. 훈구관료가 공경대부의 언행이나 일탈 등을 두루 채집하여 국승에 상응하는 또 다른 역사적 자료로 삼았음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강욱, 「필원잡기 서사적 단편의 존재방식과 서거정의 세계관」, 『동양한문학연구』37, 동양한문학회, 2013, pp.163-174 ; 정출현, 「조선 전기 잡록과 『추강냉화』, 남효온의 깊은 슬픔과 시대정신」, 『민족문학사연구』5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pp.148-150.

나 화를 내기는커녕,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다. 김안로는 해당 일화에 문장 및 독서와 관련한 토론의 장면을 삽입하여 이들이 김혼의 뛰어난 능력에 절로 승복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⁴¹⁾

김종직이 『이준록』에서 강조하는 김숙자의 모습은 『소학』에 제시된 사대부들의 공경한 몸가짐을 실천하는 모습이였다.⁴²⁾ 『소학』에 제시된 사대부들의 행동 규범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꺼려 言笑하는 일이 드물고 술을 마시거나 잔치를 하는 행위 역시 금기시하는 것이다.⁴³⁾ 그 결과 유력 정치인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소신을 갖추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⁴⁴⁾ 반면 김안로는 지속적으로 김혼이 술자리에서 보인 풍류 및 동료 선진들과 교류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갈등이 없는 관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26] 몽재 이숙감 공이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홍문관의 의론이 장차 탄핵하고자 하였으나 선공만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의론이 그치지 않자, 공은 숙직소에 누워 의론에 참여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무릇 일이란, 마땅히 뒷마무리를 잘하고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누

41) 제8화에서 김안로는 이극배가 김혼을 어여뻐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도목정사의 자리에서 무반직 수십 여인에 대한 초안을 잃어버렸는데, 보좌 김혼이 즉시 이를 기억하여 적어내니 빠지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응선을 차질 없이 마치고 이극배가 김혼의 뛰어난 기억력을 칭찬하며 군색한 실수도 용서하고 흡족해 하였다고 한다. “成廟嘗親政【除職人，謂之政】。兵部廣陵公，選武爵數十餘人，具疏履歷，將以應上命，付公爲佐。及入對，有缺當補，判公顧公索抄，則覺已亡。判相蒼黃，公卽抽毫記其名，無一遺錯，以此應選無差。判相退喜曰：‘人誰無失？能記如君，足償初窘。’【嘗聞於堂叔延昌公，孤安老爲檢詳，謁成議政希顏公于第，議政亦爲子說之。】”

42) 줄고, 앞의 논문, pp.210-225. 필자는 김종직이 김숙자의 삶을 『소학』의 「立教」, 「明命」, 「敬身」의 세 조목에 대응하는 일화로 재구성하였음을 위 논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43) 『小學集註』外篇-善行, 「實敬身」第六十九章, “呂正獻公，自少講學，卽以治心養性爲本，寡嗜欲，薄滋味，無疾言遽色，無蹇步，無惰容，凡嬉笑俚近之語，未嘗出諸口，於世利紛華聲伎遊宴，以至於博奕奇玩，淡然無所好。”

44)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乙亥夏，與金南海允德，遇於清道公館夜話。公云：‘子昔在高靈，金宗瑞時以都巡察使入縣，召余對食。金指案上白砂器曰：‘貴縣砂器，甚善甚善。’言至再三，予實未了其欲之也，只唯而退。後金在京師，屢對人謂予之拙，冀子聞之。’”

가 그분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안처량 공이 대신 임명되었는데 제공들이 혀를 내두르며 말하기를 "그대는 참으로 사려 깊군요." 라고 하였다. 【사성 김안국이 나와 함께 사가독서를 할 때 의정부 성희안공께 들었다고 말해주었다.】⁴⁵⁾

인용한 제26화는 1484년 홍문관 부제학에 새로 제수된 이숙함이 스승 吳尙文의 첩과 간통하여 어른으로 삼아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응고 鄭誠謹 등의 건의에 대해 김혼만이 홀로 반대하였다는 내용이다. 김혼은 홍문관 부제학의 임무를 대신할만한 인물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 잘못을 하나 하나 배척하면 인재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논박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실록에도 수록되어 있다.⁴⁶⁾ 26화에서도 원칙에 따라 조정 선진을 논박하는 언관의 면모 대신, 事體를 합리적으로 따져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김혼의 면모만이 부각된다. 즉, 김안로는 『이준록』처럼 엄청난 자기절제나 행동에 대한 규약이 없어도 조정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上官이나 선진들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문학 능력과 안목에서 비롯된 정치적 확신에 기반을 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김안로의 취사선택에 의거한 일화선택의 결과이다. 예컨대, 김혼은 임원준과 임사홍 부자를 탄핵하는 일에 참여한 바 있으나,⁴⁷⁾ 김안로는 이를 「연보」나 「유행」

45) 『夢齋李公淑城爲副提學，館議將劾，公獨不可。議且不止，公臥直閣，不與曰：‘凡事，當思善後，孰可其代？’安公處良果代之，諸公吐舌相顧曰：‘君誠深料！’【金司成安國，同余於讀書堂，聞之成議政希顏公云。】”

46) 『성종실록』 권169, 1484년(성종 15) 8월 13일, “史臣曰：弘文館以新授副提學李淑城，素無行，不宜同處，將駁之。典翰金訢獨曰：‘不知代淑城者何人耶？若又甚焉，將一一盡斥乎？我則不敢及。’安處良代爲副提學，訢曰：‘我固不言耶？果勝淑城否？’聞者始服之。訢，端雅簡靜，寡言笑，少許可，不爲人軒輊。遇事敢言，雖當天威震怒，舉止益雍容，略不動色。工於詞翰，藻鑑甚明，駢儷尤其所長也。”

47) 『성종실록』 권91, 1478년(성종 9) 4월 30일, “校理安琛，副校理權景祐·金訢，修撰李昌臣曰：‘任士洪舉動言語險波不正，常以謂此人執權柄，則必誤國矣。近者所啓‘天變不足畏，異端不足闢，臺諫之言不必聽’之言，小人情狀畢露，故斥指爲小人。’”

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상술하였듯, 일화선택의 과정에 김안로의 '필터링' 즉 어떤 의도성이 농후하게 개입하였음 방증하는 것이다.

김안로는 왜 이처럼 의도적으로 사대부 간의 갈등이 아닌 조화와 상호 인정의 일화를 선택하였는가? 그 단초는 다름 아닌 『용천담적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필자주: 성종조] 조정이 아주 청명하여 (중략) 사대부들이 신의로써 서로 허여하고 서로 시기하거나 軋轢을 다투는 형세가 없었다. 관청은 한가하고 근무시간에도 여가가 많으니 날마다 詩酒를 즐겼으며, 윗사람은 그러한 기치를 아끼고 양성하여 주었으며, 아랫사람은 그러한 풍류를 흠모하였다. 그러한 당시의 기상을 지금은 볼 수 없으니 추억하면서 길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⁴⁸⁾

김안로는 『용천담적기』에서 성종조의 사대부들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상호갈등 없이 신의와 문학으로 교유하였음을 회상하며, 사대부의 詩酒가 바로 그러한 盛世의 상징임을 밝힌바 있다. 아버지 김혼의 삶을 반추하면서 지속적으로 술자리의 풍경과 동료로부터 선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격의 없이 어울리는 일화를 묘사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후진을 양성하는 풍조를 흠모하고 존경을 표하며 상호 공박하는 일이 없었다고 회상한 내용은 「연보」에 수록된 김혼의 파직에 대한 김안로의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 김혼은 진사과와 문과 모두에서 장원급제한 촉망받는 인재였다. 김혼은 1471년 친제에서 장원하여 成均館典籍에 보임되었는데 곧바로 파직되고, 2년이 지나서야 다시 성균관전직에 임명되었다. 이때의 파직은 김혼 관력의 거의 유일한 오점이다. 관련 내용은 「연보」에서 가장 상세한 부분이기도 하다. 파직의 연유는 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신급제자 김혼 등이 성균관에 이르러 선성묘를 배알

48) 김안로, 앞의 책, 「용천담적기」, “當時朝廷清明(…) 士大夫以信義相與, 絕猜疑互軋之勢, 官署清閑, 卯申多暇, 日以文酒相娛諠, 居上者愛養其氣致, 在下者歆慕其風流, 當時氣像今不可見, 莫不追想而永歎.”

하고 선진들에게 인사하는 면신례의 자리에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담을 넘어 들어와 선성묘의 문을 열어 행례하고 문지기를 폭행하는 실례를 저질렀다는牒啓가 보고된 것이다.⁴⁹⁾ 2년 뒤 다시 성균관전적에 복직되었을 때에도 같은 사유로 인해 대사헌 서거정에게 탄핵을 받았다.⁵⁰⁾ 김안로는 연보의 해당 항목 아래 세주를 달아 파직의 연유를 자세히 해명하였다.

나라 제도에, 문무과 放榜을 할 때 甲科에게 푸른색 일산을 주고 같은 방대에 있는 자들을 인솔하여 遊街하게 한다. 이튿날 대궐에 나아가 사은하고 사흘째 되는 날 문묘에 나아가 알성한다. (알성할 때에는) 반드시 성균관 정록소에 먼저 알려야 하는데, 정록소에서는 신래 불림을 당한다. 광대가 하는 것처럼 온갖 희학을 하게하며 한참동안 문을 잠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바야흐로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는 대개 사문의 선배들이 후진들의 날카롭고 강한 기운을 꺾어놓으려는 의도이다. 선공께서 양방을 거느리고 정록소에 나아갔는데 문이 닫혔고, 날이 저물었다. 당시 단산수 이혜가 무과에 급제하여 무리에 있었는데, 그 노복이 갑자기 문을 열고는 "정록소에서 여러 신은이 나가시도록 허락했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임을 모른 채 차례로 물러나왔다. 정록은 하인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고 화가 나서 계를 올려 아뢰니, 一榜이 모두 파직을 당하였다. 종실들에게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⁵¹⁾

49) 『성종실록』 권10, 1471년(성종 2) 4월 11일, “禮曹據成均館牒啓: ‘新及第等遊街, 翼日詣闕謝恩, 次謁先聖, 至於先進莫不致敬者, 所以美士習, 勵新進也. 今新及第金訢等纔脫儒冠, 便生驕氣, 乃於先聖廟庭, 使其奴, 踰垣而入, 擅開門鑰, 闖入行禮, 以至手歐守僕, 非徒陵蔑師長, 實爲侮慢先聖, 敗毀士風, 漸不可長. 請令司憲府推鞫肅治.’ 從之.”

50) 『성종실록』 권27, 1473년(성종 4) 2월 12일, “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來啓曰: ‘金訢等以新及第, 謁文廟, 排門闖入, 狂悖失禮, 受私罪廢黜, 今未經二年, 特除訢成均館典籍, 有違大典, 犯私罪經二年乃赦之法, 大典者, 祖宗之成憲, 將欲傳之萬世而不廢者也.’ (….) 傳曰: ‘金訢之罪, 新進儒生, 不知而犯之耳, 豈可終棄?’”

51) 김안로, 『안락당집』 권3, 「연보: 成化七年辛卯」, “國制, 文武科放榜, 賜甲科青蓋, 率諸榜下遊街. 第二日, 詣闕謝恩, 第三日, 謁聖于文廟, 必先謁正錄所. 正錄所呼新來, 備尋諸戲, 有類於俳, 鎖門良久, 方許放遣, 蓋斯文先輩, 深折後進剛銳之氣之意也. 公率兩榜, 詣正錄所, 方闔門, 日已晏. 丹山守穗 中武舉, 亦在其中, 其奴忽開門呼曰: ‘正錄所信新恩出’ 莫知其誣, 以次退. 正錄怒以爲不檢下, 轉報以聞, 一榜皆坐罷, 宗室不許赴舉, 始此.”

김안로는 이 사건에 대해 연보에서 주석으로 언급한 이후로는 다시 해명하지 않았다. 김종직이 『이준록』에서 김숙자의 '조강지처 출처' 사건을 연보, 유행 등에서 여러 항목을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해명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⁵²⁾ 특히 종실 이해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자신의 노비를 제대로 검속하지 못해 그 노비가 무망한 짓을 하여 김흔 등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파직당한 것뿐 면신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⁵³⁾

요컨대 김안로는 김흔의 삶을 슬회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사대부의 상하 위계질서 및 기강의 확립에 근간을 둔 성종의 '치세'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김흔은 타고난 자질과 노력에 의해 증폭된 학업적·문학적 능력을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상적 사대부의 삶을 살았음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비단 사대부 상호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신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14】 하루는 참판 신중호 공과 함께 경연석상에서 정사에 대해 논하였다. 그런데 선공께서 위태로운 말로 직간을 하니, 天威가 진동하여 시측하는 자들이 목을 움츠리고 감히 한 마디 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공 홀로 차근차근(시비를) 변석하니 표현은 완화되었으나 뜻은 강직하여 인주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주상께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끝내 주달한 내용을 가납하셨다. 참판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김공의 강직함은 참으로 나는 미치지 못할 바이다.”라고 탄복하였다.⁵⁴⁾

52) 참고, 앞의 논문, pp.215-218.

53) 이처럼 상하위계에 따른 차등과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복종에 기반을 둔 정국 운영 방식이 16세기 대신세력[훈구세력]의 특징이라고 본 연구도 있어 주목을 요한다. 특히 면신례의 폐단이 자주 지적되는 상황에서 훈구세력은 면신례가 신진의 예기를 꺾고 용忍의 덕을 기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관료사회에서의 위계와 기강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신, 「16세기 前半 勳舊士林의 관료제 운영론 비교」, 『조선시대사학보』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pp.14-16.

54) “一日, 與申參判從護司在經席論事, 公以危語劇上, 天威震怒, 傍侍皆頸縮, 莫敢出一聲. 公獨徐徐辨析, 辭婉義直, 足以感動人主. 上怒霽, 竟可其奏. 參判出語人曰: ‘金公之剛直, 誠所難及.’ 【又出墓誌】”

【24】충주 한 유세가의 노비가 평소 오만방자하여 州官을 욕보이고 다니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주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붙잡아 두었다가 방면하였는데, 며칠이 지나 병사하였다. 그러자 그 주인이 관에서 남살하였다며 고소하였기에 치죄하려 하였다. 조정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옥사를 처결하고자 하였는데 辭證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오래도록 판결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주상께서 선공계 특명을 내려 疑獄을 해결하게 하셨는데, 충주목사가 공의 친척이었기에 피혐을 청하였다. 그러나 상께서 손수 어찰로써 “네가 사심을 품었다면 사심을 품지 않은 자는 누구란 말인가?”라고 하셨다. 그러자 공이 즉시 하직인사를 드리고 충주에 이르러 관관에게 말하였다. “오늘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친속이기 때문이요, 내일은 공안을 증험할 것이니 이는 공사이기 때문이다. 어찌 사정을 돌아보겠는가?” 그 실정을 상세히 갖추어 아뢰니 임금께서 마침내 기뻐하셨다.⁵⁵⁾

인용한 제14화는 신종호의 묘지명에도 언급된바, 김훈이 역린의 위기에서 완곡하게 자신의 뜻을 주달하여 성종의 오해를 풀었다는 내용이다. 제24화는 1483년, 충주의 의옥사건을 처결하는 과정에서 김훈이 성종의 분노를 저축할 수도 있을 법한 긴장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忠州判官 金薰은 성종대의 대신 金永濡의 아들이다. 김훈은 동료를 공박해야 하는 이 곤란한 사건에서 김훈과 척숙의 관계라는 이유로 피혐을 청하였으나, 그 속내를 꿰뚫어본 성종이 公事에 私心を 개입하지 말라는 御旨를 전하자 즉시 의욕을 처결하려 내려가 공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처결하였다는 것이다.⁵⁶⁾

인용한 두 일화에는 모두 군신간의 위계에 입각한 일촉즉발의 긴장감

55) “忠州有勢家奴，素橫多辱州官。州嘗治繫，放遣多日而病死，其主訴濫殺。將坐，朝廷遣官治獄，辭證多疑，久而莫辨。上特命公往理，州倅於公親屬，請避。上以手札示之曰：‘爾而懷私，孰不懷私？’公卽陛辭，比至，謂倅曰：‘今日相斂，親故也。明日案驗，公也。寧顧私耶？’俱得其實以聞，上遂釋然。”

56) 『성종실록』 권159, 1483년(성종 14) 10월 13일, “義禁府啓：‘忠州判官金薰，濫刑官奴萬中致死罪，律該杖一百，告身盡奪，永不敘用。’傳曰：‘當依法科斷。然金薰，是金永濡之子也，除永不敘用，杖一百收贖，告身盡行追奪，外方付處。’”

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김혼은 강개한 방식으로 긴장을 고조하거나 일방적으로 군주의 뜻에 복종하는 대신, 원래의 의도와 기개는 그대로 견지한 채 표현 방법을 달리하거나 公論에 입각한 正道로써 문제를 돌파함에 따라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성종 역시 김혼을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결국 그의 뜻을 가납하고 가상해하거나, 자신의 본심을 어필로써 전달하여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즉 김혼의 언동에 담긴 의미를 성종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김혼의 뛰어난 학문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컨대 제13화에서 성종은 김혼 등에게 「東郊觀獵」을 주제로 賦試하게 하였는데, 가장 먼저 지어낸 김혼의 시를 읽고 각 구절에 담긴 풍자의 의미를 바로 간취하여 御衣를 하사하기도 하였다.⁵⁷⁾ 군주가 신하의 뛰어난 문학적 능력과 충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신하에 대한 가장 큰 예우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성종대는 강화된 왕권에 기반을 두고 대신과 삼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는 협치를 추구하였다. 반면 연산군대에 이르러 '凌上'을 명분으로 두 차례의 사화가 일어났다. 「유행」이 창작된 중종 초반의 정국도 마찬가지이다. 반정에 의해 갑작스레 왕위에 등극한 중종의 왕권은 성종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대신과 삼사가 주도권을 양분하고 있었으나 功臣을 과도하게 임명하여 삼사의 지속적 탄핵이 계속되면서 삼사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면모와 부정적 면모가 함께 커지는 상황이었다.⁵⁸⁾

김안로는 下官이자 年少者, 혹은 군주의 신료로서 김혼의 면모를 묘사하는 데 방점을 두어 연소한 하관의 기개와 신료의 강직한 목소리가 모두 받아들여진 조화의 시대로서 성종의 치세를 회상하고 있다.⁵⁹⁾ 사대부간

57) “成廟蒐闕箭郊, 以東郊觀獵爲題, 命扈從儒臣, 製排律三十韻以進. 公獨立就, 上嘉嘆不已, 示月山君曰: ‘句句含諷, 非徒工也.’ 解御衣賜之. 【金領相壽童公, 嘗候文貞公第, 從容說此甚詳】.”

58) 김범, 『사화와 반정의 시대』(개정증보판), 역사의 아침, 2015, pp.94-108, pp.177-193.

59) 김안로는 대신과 연소한 하관들이 각자의 직분과 위계 속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누차 상소한 바 있다. 『중종실록』 권20, 1514년(중종 9) 9월 22일 ; 『중

의 일화에서는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관대함이 더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김혼 역시 스스로의 실수를 뉘우치거나 상관의 아쉬운 점을 면전에서 지적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였다고 함으로써 웃음을 통해 화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군주와의 일화에서는 기개를 잃지 않는 신료와 그를 알아봐주는 임금의 지우를 묘사하였다.

즉, 김안로가 재구한 김혼의 삶은 사대부 상하간의 정치적 기강이 확립되어 있는 문치의 시대 한 가운데를 살아가며 정치와 문화의 발전·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한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군주와 사대부간, 그리고 사대부와 사대부간의 이상적 관계를 묘사하는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年少 정치인이자 사대부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⁶⁰⁾

이와 같은 「유행」의 특징적 국면을 고려해 볼 때, 김안로가 가문적·학문적 배경에 의해 성종대의 文運 및 사가독서 등의 遺制를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였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 있음이 드러난다. 연산군대를 거치며 침체된 世道를 부흥시킬 모델로 성종대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그리움을 각종 작품 및 학문 정책 등에서 발현하였다는 것이다.⁶¹⁾ 그러한 그리움의 연장선상에서 1518년 김안로의 숙부 김전, 신용개, 남곤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續東文選』에 김혼의 작품이 25편 수록되었다는 점⁶²⁾ 역시 경청할 만한 분석이다. 『속동문선』이 편찬되기 시작할 무렵, 김혼 사후 20년 만인 1513년부터 김안로가 아버지의 유고와 언행을 총체적으로 수습하고 1516년에 간행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시점은 바로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속편 작업을 예비하려는 의도가 일정 부분 반영된

『종실록』 권49, 1523년(중종 18) 9월 25일 기사 참조.

60) 이는 하층민에 대한 인식에서도 일정부분 계승된다. 「유행」의 제34화에서는 상하준비의 위계를 노복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김혼의 가르침이 서술되어 있다. “治家肅睦, 內外有載, 男僕無故, 不入中門. 捶楚罕施, 而畏愛無忤, 燕居端默, 非有問, 家人小子, 不敢輒出言笑. 孤兄第自離襁褓, 常承嚴訓, 亦不敢出街里遊嬉, 雖在彌留中, 開誨不倦. 日望成立, 而不肖尙稚, 奄遭大酷, 嗚呼罔極!”

61) 정용건, 앞의 논문, 2018b, pp.146-156.

62) 정용건, 앞의 논문, 2018a, pp.223-229.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제18-19화에 제시된 대마도 사행길에서 보인 초연한 기개, 제28화나 35화 등 治家의 과정에서 보인 검소함과 巫佛에 대한 경계 등, 성종대라는 정치적 배경과는 무관한 김혼의 모범적 행실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으나 전체의 60%가 넘는 일화가 성종으로부터 받은 예우 및 그 시절을 살아온 사대부들의 풍류에 대한 회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안로가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하고 유행을 정리하는 작업은 성종의 치세를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계승할 의지를 다질 좋은 기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발문을 쓴 김안국이 김혼의 생애에서 뛰어난 덕과 함께 성종의 예우를 추출해낸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⁶³⁾

그와 관련하여 김안로의 「유행」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점필재 김종직과의 관련성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39] 점필재 선생께서 후진들을 인도하심에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울연히 문학의 종주가 되시니 당시의 이름난 인재들이 그 문하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선공께서도 어렸을 때 옷깃을 추스르고 사사하였는데, 날로 고명해져 문간공께서 대단히 경탄하시어 ‘益友’라고 추어올리셨다. 문장에 대해 논할 때에도 선공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들 중에 찾아보면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난 분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가장 탄복할 만한 사람은 오직 공뿐이다.”라고 하셨다.⁶⁴⁾

인용한 대목은 앞서 살펴본 제2화에 이어 김혼이 김종직에게 사사 받았으며, 특히 문장으로 김종직의 탄복을 이끌어냈음을 서술한 것이다. 제 2, 3, 5, 20, 33, 39, 42화 등 모두 7개 일화에서 김혼이 김종직과 교류하는

63) 김안국, 앞의 책, 앞의 글, “嗟夫! 以先生之德之才, 遭逢成廟之聖, 荷非常之眷, 不爲不遇, 卒斲於壽, 使不得大有所爲於斯世, 天意果何如哉?”

64) “佔畢齋誘掖後進, 多所成就, 蔚然爲文學之宗. 當時聞人, 無不業門下, 公少亦樞衣, 而日就高明, 文簡深加敬服, 推以益友. 論文章, 至公曰: ‘當求之古人中, 以文名世者林林, 而最服唯公.’”

가운데 학문과 문장을 모두 인정받았음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흔이 영천에 계신 외조부에게 귀근을 하러 가는 제5화, 魏徵의 「十思疏」를 성종에게 바쳐 어찰을 하사받았다는 제33화에서는 김종직이 지어준 送序 및 贊의 전문을 세주를 통해 전재하였다.(II. 그림2 참조) 「선집기」에서도 가장 먼저 김종직을 거론하며, 당대의 문장이 모두 김종직의 손을 거쳤고 김흔을 비롯한 수많은 문사들을 배출하였음을 강조하였다.⁶⁵⁾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오직 김종직이 김흔에게 지어준 작품만 전문을 수록하는 까닭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무오사화를 겪으며 훼손된 『점필재집』의 초간본이 1513년까지 제대로 流傳되지 않아 김안로가 가장되어 있던 송서 및 찬의 전문을 수록하였을 가능성이며,⁶⁶⁾ 다른 하나는 앞서 김안로가 성종의 치세를 롤모델로 상정하였듯 중종대에 들어 김종직 및 그 제자들이 복권되자⁶⁷⁾ 김종직과의 학맥을 강하게 입증하여 부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 의도적으로 전문을 수록하였을 가능성이다.

앞서 사대부 및 군신 관련 일화에서 드러난 김안로의 시대의식이 정치적 측면에서 상하의 위계질서에 순응하며 능상을 경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문적 측면에서 김종직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65) 김안로, 앞의 책, 「선집기」, “金宗直字季暉: 嵩善人, 登天順己卯文科, 久屈下僚. 大肆於文, 獎進後學, 爲一時所宗師.(…) 性恬簡, 爲柳子光所惡, 戊午獄起, 禍及泉壤, 焚遺藁, 入聖朝, 收灰燼餘行世, 號佔畢齋集, 推爲近代詩祖. 所著彝尊錄, 所撰靑丘風雅, 東文粹行世.” 1513년에 「유행」을 초찬할 당시, 『이준록』을 이미 알고 읽었을 가능성이 이를 통해 더 높아진다.

66) 『점필재집』의 初刊 과정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1495년(乙卯)에 산문 1권이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1498년(戊午)에 시집 5권을 활자로 인출하였으나 이 해 무오사화가 일어나 초간본의 인출본 및 책판이 소각되었다. 그리하여 현전하는 최고본은 1520년(庚辰本)에 선산에서 인출된 목판본이다. 김윤수, 「『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35, 한국서지학회, 2006, pp.310-311; 서강선, 「『佔畢齋集』의 板本계통 研究」, 『서지학연구』57, 한국서지학회, 2014, pp.255-256.

67) 『중종실록』 권3, 1507년(중종 2) 6월 11일, “傳于藝文館曰: ‘前者大臣議, 以金宗直金顯孫等辭連被罪者, 果有曖昧, 宜追贈其爵.’”

이러한 글쓰기 방법은 다소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지 않나 한다.

김안로가 비록 「유행」을 첫 편찬한 1513년, 신용개 등과 함께 昭陵 북위의 상소를 올려 이를 성사시켰다거나, 조광조와 함께 김굉필과 정여창의 贊을 주장하는 등의 행적은 김종직-김혼으로 이어지는 학맥, 채수로 이어지는 혼맥 등 성종대-중종대의 신진 사류들과의 동질적 국면에 기반을 둔 결과임은 사실이다.⁶⁸⁾ 반면, 김종직이 『이준록』에서 강조한 이상적 사대부의 면모와 김안로가 「유행」에서 강조하는 이상적 사대부의 면모가 상호 전면 배치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행」의 43개의 일화들은 모두 김혼이 타고난 비범함과 학문을 향한 노력, 정계에서의 위기관리능력, 능력에 바탕을 둔 자신감, 윗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성품 등을 보여주며, 그것들이 긴밀하게 하나로 꿰어져 인간 김혼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하지만 「유행」을 구성하는 주요한 두 축인 정치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에서 김혼의 이력을 정리한 김안로의 일화 선택 기준은 상호 위계질서에 따라 갈등과 반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대신들의 정국 운영방침과 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크다.⁶⁹⁾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선부군유행」에서 김안로는 자신의 시대인식을 아버지 김혼의 삶에 투사하고 있다. 김혼이 사망할 당시 김안로는 12세에 불과하였기에 2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유고를 수습하고 아버지의 언행을 망라한 점, 국승이나 전언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재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은 이 작품이 모티브가 되었던 김종직의 『이준록』을 비롯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형적·모범적 사대부상을 강조하는 여타의 전장비지류와는 변별되는 지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선부군유행」은 김종직의 『이준록』의

68) 정용진, 앞의 논문, 2017, pp.61-63.

69) 이는 김안로의 「兩是論」을 연상케 한다.

형식과 문제의식을 계승한 부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1480년 『이준록』이 최종 탈고된 후 40년이 지난 뒤에 찬수된 김안로의 「선부군유행」은 그 시대적 거리만큼이나 서로 달라진 시대인식과 표현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김중직의 『이준록』은 사대부, 특히 벼슬이 높지 않은 선비들의 행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서 『소학』의 보급 및 실천에 힘쓴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김숙자는 사망하기까지 조정으로부터 그 덕과 재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준록』을 통해 '모범적 스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자연히 『이준록』은 후손 및 독자들에게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반면 김혼은 김숙자와 완전히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타고 났으며, 군주인 성종과 여타 조정의 선진들로부터 최상의 예우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가 비록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운명이었으나, 김안로가 선택한 김혼 삶의 주요 일화 가운데 어떠한 비장미나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는다. 김안로가 그리워하는 태평성대인 성종대는 엄청난 자기절제가 없어도 충분히 사회의 동료들 및 임금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문치의 시대였다. 김안로의 「선부군유행」 안에는 동료 사대부와는 불화가 전혀 그려지지 않으며 孝弟와 같은 『소학』의 원리도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아 한결 생기 있는 김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도 세조대를 살아간 김숙자와의 시대적 결이 매우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 [38] 고자 안로가 1501년, 진사에 급제하여 동중추 이창신공을 배알하였다. 내게 말씀하시길, "선공께서 덕행이 훌륭하시어 당시의 중망을 한 몸에 입으셨다. 그러나 홀연히 그 벼포 바를 거두고 떠나셨는데, 하늘이 보답해주는 것이 바로 자손에게 있었구먼."이라고 하셨다. 또한 "공께서 와병중이실 때 내가 벼슬자리에 매어 있어 거의 병문안을 가지 못하였다. 하루는 편지를 보내어 문후를 여쭙었는데, 편지 말미에 시를 적어 돌려보내주셨다. 그 시에 '땅이 궁벽해 거마가 끊어진 것이니, 병이 깊어 친구가 멀어진 것은 아니라고.'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었으나, 시어가 부드럽고 뜻이 도타우니 남을 야박하게 책망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후중한 군자였다네. 지금도 생각하면 눈앞에 빛이 나는 것 같으니 일찍이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네.”라고 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오열하였다.⁷⁰⁾

「유행」의 막바지에 들어 김안로는 비로소 김종직의 동료인 李昌臣의 목소리를 빌어 아버지의 덕행과 학문을 자신이 계승하였으며 그것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화에서 드러나듯, 김안로는 「선부군유행」에서 특정 인물이나 시대적 국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제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김혼의 일화를 취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학문적 계통과 선호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김안로에게 「선부군유행」을 찬수하는 일은, 김안로 자신을 포함한 후손들에게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사대부'로서 김안로의 빛나는 삶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전달하는 주요한 계기였다. 김종직은 벼슬을 하지 않거나 낮은 관직을 역임한 지방 사대부의 삶의 방식을 상정하였다면, 김안로는 성종의 치세에 대한 계승의지에 기반을 두고 관료사회에서 학문적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상호 교류를 적극 추구한 인물을 이상적 삶의 표상으로 상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안로가 활동하던 중종대 역시 '문치'가 충분히 강조되는 시대였으나, 그는 분명 '성종대의 문치'에 대한 강한 동경을 품고 있었음이 「선부군유행」 전면을 통해 간취된다. 요컨대 김안로가 기획한 '김혼 삶과 학문의 재구성' 방식은 적어도 그 자신에게 있어 후대에 아버지를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전하는 길이자, 아버지의 시대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시대의 이정표를 찾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김혼은 정치적으로나 학술적·문화적으로 성종의 시대를 대표할만

70) “孤安老新舉進士，謁李同樞昌臣，曰：‘先公德邵行尊，大負時望，而奄斂其施，天之報與，將在後昆。’且曰：‘公之寢疾，余羈劇宦，阻問者曠月。一日，馳簡以候，以詩回簡尾曰，‘自是地偏車馬絕，不應多病故人疏。’蓋責余久絕，而辭婉意敦，不欲泊責人類是，真篤厚君子也。至今想憶標采，未嘗斯須忘也。’因泫然，孤亦不覺失聲。”

한 유력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한명회, 서거정, 김종직 등의 중진들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김안로는 그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능력 있는 사대부들이 군주와 조정의 선진들로부터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지위와 대우를 누리는 상징적 인물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호출해낸 것이다. 김흔의 삶은 실로 김안로 자신의 이상과 존경이 가장 완벽하게 投象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參考 文獻〉

- 歐陽修, 『歐陽文忠公集』附錄 권5(中國基本古籍庫 DB).
- 金安老, 『希樂堂稿』(한국문집총간21, 한국고전번역 DB).
- 金宗直, 『彝尊錄』(한국문집총간12, 한국고전번역 DB).
- 金訥, 『顏樂堂集』(한국문집총간15, 국립중앙도서관 DB).
- 成 俔, 『慵齋叢話』(한국고전번역원 DB).
- 조선왕조실록(DB).
-
- 강경미, 「申綽 산문의 일고찰-行狀類 산문의 기록성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6,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4, pp.231-258.
- 강혜선, 「김창첩, 김창흡 가문의 한시에 나타난 아버지」,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pp.27-51.
- 강혜선, 「조선후기 윤증(尹拯) 가문의 부의식(父意識)과 아버지 상(像)」,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pp.75-105.
- 구슬아, 「김중직의 『이준록(彝尊錄)』에 대한 문학적 고찰」, 『국문학연구』 35, 국문학회, 2017, pp.183-232.
- 김 범, 『사회와 반정의 시대』(개정증보판), 역사의 아침, 2015.
- 김윤수, 『估畢齋集』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35, 한국서지학회, 2006, pp.303-327.
- 김일근, 「杜詩諺解와 黃山谷詩集諺解에 對한 異見」,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1964, pp.137-143.
- 김정신, 「16세기 前半 勳舊 · 士林의 관료제 운영론 비교」,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pp.5-46.
- 남종진, 「中國 傳統 墓道文의 文學的 特徵에 대하여-歐陽脩의 〈龍岡阡表〉를 一例로」, 『중국문학연구』 27, 한국중문학회, 2003, pp.159-181.
- 서강선, 『估畢齋集』의 板本계통 研究, 『서지학연구』 57, 한국서지학회, 2014, pp.253-283.
- 이강욱, 「필원잡기 서사적 단편의 존재방식과 서거정의 세계관」, 『동양한문학연구』 37, 동양한문학회, 2013, pp.151-187.
- 이중묵, 「韓國 文人 年譜 研究-16세기 이전의 연보를 중심으로」, 『장서각』 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pp.187-218.

- 장영희, 「16세기 필기의 일고찰-『기묘록(己卯錄)』과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pp.171-198.
- 정용건, 「中宗代 官僚 文人의 ‘文治’에 대한 기억과 정책적 계승」, 『한문고전연구』 3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pp.143-176.
- 정용건, 「中宗代 續撰增補 사업과 그 정치적 함의」, 『한문학논집』 50, 근역한문학회, 2018, pp.205-244.
- 정용건, 「希樂堂 金安老의 文章觀과 學問 興期論」,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017, pp.53-88.
- 정출현, 「연보와 평전-사실의 기록 또는 기억의 서사」, 『한국한문학연구』 67, 한국한문학회, 2017, pp.69-110.
- 정출현, 「조선 전기 잡록과 『추강빙화』, 남효온의 깊은 슬픔과 시대정신」,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pp.143-183.

Abstract

A Study on the Word and Behavior of the Father(先府君遺行) of Kim Ahn-ro(金安老)

Koo Seul-ah*

This paper is the first analysis of the work of Kim Ahn-ro in the middle of the Chosun dynasty, which summarizes the life and behavior of his father Kim Huen(金訥). It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 aspects such as the criteria of the anecdote selection and the way of expression, and examined Kim's awareness of the times.

Kim Ahn-ro pick up his father's poetry at 1513. And he selected 43 special anecdotes in his father's life. In this process, Kim Jong-jik(金宗直) greatly borrowed the form and problem consciousness of *IICHUNROK*(彝尊錄), which summarized his life and behavior. In Kim Ahn-ro's writings, feelings of sadness or loss of father's absence were weakened, and instead, overall respect for father's life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emotions of recalling the 'father's age' are more important than the Kim Jong-jik.

The *Word and Behavior of the Father*(先府君遺行) is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academic efforts of the gentry(士大夫), together with the age of harmony in which such gentries are recognized by advanced monarchs and a seniors. Kim Ahn-ro recalls the era of Seongjong as the peaceful reign, where the gentry did not conflict with one another but recognized each other through faith and literary works.

He described his father 's life on the political side, guarding his attitude to comply with the hierarchy and despise his superior. On the other hand, in the academic aspect, it takes a positive attitude to promote the relationship with Kim Jong-jik.

The anecdotes presented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exemplary Confucian scholars.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Kim Ahn-ro's work to arrange his father's remembrance and summarize his father's Word and Behavior was a good opportunity to prospect the succession of King Seongjong(成宗) and to endure his will

* Senior Researcher of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trot999@snu.ac.kr

to succeed. It is not the intention to assume the father's life as the standard of the gentry, but to confirm the milestone reminding the way to go through the father's time.

【Key words】 Kim Huen(金訖), Kim Ahn-ro(金安老), Kim Jong-jik(金宗直),
ICHUNROK(彝尊錄), King Seongjong(成宗)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완료일 : 6월 7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